

소프트웨어산업의 재도약 기대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SW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최근 하드웨어 중심의 IT산업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SW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동 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SW산업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으로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SW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SW+서비스, SW+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SW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 SW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SW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SW가 융합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발굴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서비스 시장창출, SW·IT 등 관련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식품 원산지정보 서비스, 기업 유해물질 정보관리 종합지원 서비스, 교통정보 종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모델이 검토중에 있다.

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전략산업과 SW를 접목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임베디드SW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SW와 전략산업과의 융합촉진을 위한 기반

으로서 R&D결과물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검증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SW융합촉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국책 R&D성과물을 중소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선도프로젝트와, 중소 임베디드SW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시 대기업 참여한 금액을 '09.4월부터 조정하되,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인 참여한 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개발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SW분리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생·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SW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며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정보화 모델 구축 지원을 위해 상무관·에너지자원관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기로 한다.